

장 군 님 과 C N C (10)

공조체계가 있어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첨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현장방문으로 나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이 말씀드리었다. 《장군님께서 지난해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표준공장으로 꾸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통째로 들어내고 건물은 완전히 개조해서 항온항습의 생산환경을 갖추려고 합니다.》

희망과 포부도 가득찬 이야기였다. CNC공작기계공장건설이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고있는것이 마음에 드시어 그이께서는 만족감을 표시하시었다. 《아주 좋소.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그 어떤 정밀기계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장군님, 여기서 어미기계를 만들자면 정밀한 연마반이 있어야 합니다. 연마반만 몇대 가져다놓기만 하면...》

연마반이야기를 꺼내는 지배인에게 장군님께서는 적어 말씀하시었다. 《연마반은 공조체계가 있어야 쓸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적어 말씀하시는 바람에 연마반에 대한 회화가 공조체제로 돌변하였다. 《예, 맞습니다. 공조체계...항온, 항습...》 연마반이야기를 꺼냈던 지배인의 목소리는 떠들거리며 작아지고말았다. 《뭘니뭐니해도 CNC공작기계생산공장은 우선 공조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먼저 공조체계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있었다. 정밀한 기계를 쓰려고 해도 그렇고 그런 기계를 만들자고 해도 그렇고 우선 공조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것을 깨우쳐 주고 강조해주시는 위대한 지도과장이 일군들의 안목을 또 한번 열어주었다. 땅의 뜻을 따르며 키높이 성장하고있는 일군들을 자애로운 시선으로 보시면서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공조체계가 멋있게 완성되면 이처럼 추운 현장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에게 구경시키는것이 좋겠습니다.》

촬영가들에게 큰소리로 당부하시었다. 《잘 찍으시오. 최첨단을 탐욕하지는 구호가 잘 보이게.》

《장군님, 그래서 저희들은 <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로 바꿔어붙이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최첨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기념사진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첨단>이 아니라 <최첨단>이라고 말씀하시였기때문에 그 공작 동무들이 그날로 구호를 교체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도 교체했습니다.》

지배인과 책임비서가 절절하게 드리는 말씀이 여운을 남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자강도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금치 못하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중소, 저 구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었다. 《<최첨단> 구호가 잘 나와야 합니다.》

깊은 뜻을 새겨주시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 매일이면 신문과 TV로 나가게 될것이다. 사람들이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자는 것이 장군님의 의도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CNC기계앞에 처녀들을 세워놓으니 더 보기 좋습니다.》

CNC화가 펼쳐주는 새로운 현실이 만족감을 금치 못하시어 즐겁게 터치시는 말씀이었다. 《장군님, CNC선반으로 제품을 가공하니 정밀도가 높아져 검사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기사장의 이야기기 장군님의 기쁨을 더욱더 돋구어주었다. 《멋쟁이입니다. 소음도 없어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군님께서는 기대앞에 서있는 녀성로동자에게 다가가시었다. 《CNC를 잘 다룰수 있소?》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었다. 장군님을 만나뵈을 영광의 순간을 것처럼 애제 기다리고 또 기다려온 처녀였다. 《CNC를 잘 다룰수 있소?》

장군님의 물음에 처녀는 대답을 하지 않고는 못하겠었다. 《네, 그렇습니다.》

장군님의 물음에 처녀는 대답을 하지 않고는 못하겠었다. 《그렇습니다.》

대답은 간단하였지만 그 대답속에서 비견마음은 천만금보다 귀중한것이였다. 눈물결반, 웃음결반 담이 병사처럼 하는 그 대답이 장군님께서도 절로 웃음을 터치시었다.

어찌 만나뵈고싶지 않나라. 꿈속에서도 뵈고싶은 장군님이시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의 운명을 지켜주실것처럼 고티마은 은인이 또 어디 있으며 희망한 앞날에 또 떠밀어주시는것처럼 고티마은 손길이 또 어디 있으랴. 고티마의 길에서 굶어쓰러질것처럼 기대 걸고 떠나지 말라 장군님과 웃음을 함께 한 로동계급의 아들딸들을 한몸에 안아주는신 CNC기계앞에 세워놓은 은혜로운 사랑, 그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은 절절한 마음을 안고 로동자는 스스로 기계앞에 섰이였다.

그 기계앞에 서면 언제나 장군님을 똑 만나뵈옵수 있다고 믿어지지 않았다. CNC기계는 우리 장군님께서 언제나 반드시 보아주시는 《구면친구》이기때문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장군님, 그래서 저희들은 <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로 바꿔어붙이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최첨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기념사진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첨단>이 아니라 <최첨단>이라고 말씀하시였기때문에 그 공작 동무들이 그날로 구호를 교체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도 교체했습니다.》

지배인과 책임비서가 절절하게 드리는 말씀이 여운을 남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자강도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금치 못하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중소, 저 구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었다. 《<최첨단> 구호가 잘 나와야 합니다.》

깊은 뜻을 새겨주시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 매일이면 신문과 TV로 나가게 될것이다. 사람들이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자는 것이 장군님의 의도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장군님, 그래서 저희들은 <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로 바꿔어붙이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최첨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기념사진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첨단>이 아니라 <최첨단>이라고 말씀하시였기때문에 그 공작 동무들이 그날로 구호를 교체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도 교체했습니다.》

지배인과 책임비서가 절절하게 드리는 말씀이 여운을 남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자강도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금치 못하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중소, 저 구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었다. 《<최첨단> 구호가 잘 나와야 합니다.》

깊은 뜻을 새겨주시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 매일이면 신문과 TV로 나가게 될것이다. 사람들이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자는 것이 장군님의 의도였다.

어 미 기 계

경애하는 장군님과 일군들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가고있었다. 장군님; 5축이요? 담당책임비서; 아직은 4축정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7축, 8축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장군님; CNC의 주를름을 여기서 보장하니 얼마나 좋소. 지배인; 우리가 만드는 CNC공작기계는 다른 나라것보다 강성이 좋고 정밀도도

높습니다. 장군님; 우리 나라에서 어미기계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의 책임일군; 알았습니다. 장군님; 어미기계를 레전도까지 만들수 있겠소? 지배인; 예. 장군님; 우리의 어미기계를 꼭 만들어봅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장군님, 그래서 저희들은 <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로 바꿔어붙이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최첨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기념사진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첨단>이 아니라 <최첨단>이라고 말씀하시였기때문에 그 공작 동무들이 그날로 구호를 교체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도 교체했습니다.》

지배인과 책임비서가 절절하게 드리는 말씀이 여운을 남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자강도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금치 못하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중소, 저 구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었다. 《<최첨단> 구호가 잘 나와야 합니다.》

깊은 뜻을 새겨주시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 매일이면 신문과 TV로 나가게 될것이다. 사람들이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자는 것이 장군님의 의도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장군님, 그래서 저희들은 <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로 바꿔어붙이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최첨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기념사진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첨단>이 아니라 <최첨단>이라고 말씀하시였기때문에 그 공작 동무들이 그날로 구호를 교체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도 교체했습니다.》

지배인과 책임비서가 절절하게 드리는 말씀이 여운을 남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자강도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금치 못하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중소, 저 구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었다. 《<최첨단> 구호가 잘 나와야 합니다.》

깊은 뜻을 새겨주시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 매일이면 신문과 TV로 나가게 될것이다. 사람들이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자는 것이 장군님의 의도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장군님, 그래서 저희들은 <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로 바꿔어붙이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최첨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기념사진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첨단>이 아니라 <최첨단>이라고 말씀하시였기때문에 그 공작 동무들이 그날로 구호를 교체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도 교체했습니다.》

지배인과 책임비서가 절절하게 드리는 말씀이 여운을 남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자강도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금치 못하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중소, 저 구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었다. 《<최첨단> 구호가 잘 나와야 합니다.》

깊은 뜻을 새겨주시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 매일이면 신문과 TV로 나가게 될것이다. 사람들이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자는 것이 장군님의 의도였다.

서지 않아도 될 자리

중국방문길에서 접했던 피로를 푸실새도 없이 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은 계속되고있었다. 북방의 산골짜마다 진달래가 한창 피어나는 5월이였다. 광강도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로부터 삼지연장공장과 해산선발전소, 대흥단갑자가공장에 이어 함경북도에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시면서 어느 하루도 편히 쉬어보지 못하신 장군님이시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휴식보다 더 큰 하나의 력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CNC화가 실현되어가는 조국의 현실을 보시는 력이였다. 어느 나라의 CNC화는 고생끝에 락이라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인였기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광강도를 거쳐서 오시는 길에 들리신 공장들이 많았다. 그 많은 공장들에서 일군들은 자기들이 해놓은 일을 자랑하면서 CNC화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어떤 일군들은 CNC화라고 도저히 말할수 없는 아주 단순한 기술혁신을 놓고도 CNC화를 하겠다고 천진스럽게 말하고있었다. CNC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지 못한데로부터 내은 현상이기는 하였지만 장군님께서는 아직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셨다. 물론 때가 되면 그것도 바로잡아주어야 할일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장군님, 그래서 저희들은 <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로 바꿔어붙이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최첨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기념사진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첨단>이 아니라 <최첨단>이라고 말씀하시였기때문에 그 공작 동무들이 그날로 구호를 교체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도 교체했습니다.》

지배인과 책임비서가 절절하게 드리는 말씀이 여운을 남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자강도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금치 못하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중소, 저 구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었다. 《<최첨단> 구호가 잘 나와야 합니다.》

깊은 뜻을 새겨주시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 매일이면 신문과 TV로 나가게 될것이다. 사람들이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자는 것이 장군님의 의도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장군님, 그래서 저희들은 <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로 바꿔어붙이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최첨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기념사진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첨단>이 아니라 <최첨단>이라고 말씀하시였기때문에 그 공작 동무들이 그날로 구호를 교체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도 교체했습니다.》

지배인과 책임비서가 절절하게 드리는 말씀이 여운을 남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자강도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금치 못하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중소, 저 구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었다. 《<최첨단> 구호가 잘 나와야 합니다.》

깊은 뜻을 새겨주시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 매일이면 신문과 TV로 나가게 될것이다. 사람들이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자는 것이 장군님의 의도였다.

《최첨단》으로 된 구호

최첨단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CNC공업이 장엄하게 태동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현지지도도를 통하여 이것을 확인하신것이다. 《이 공장이 일을 많이 하였습니까.》

또다시 평가를 주시면서 일군들을 미더운게 바라보시는 장군님의 마음은 기쁘시였다. 《이제는 떠날 시간이다.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실 장군님을 우리르느 공장일군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리움속에 더해지는 하나의 소원이 출렁이고있었다. 《이제는 이 위대한 현실을 안아오신 자애로운 스승을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고싶은 소원이였다. 지배인이 정중히 앞으로 나섰다. 《장군님! 오늘의 이 승리는 장군님의 덕입니다. 장군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주시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일군들의 뜨거운 추억의 이야기를 들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서 와서

사진들을 찍자고 손저어주시었다. 공장의 책임비서가 큰소리로 장군님께 아뢰었다. 《장군님! 저기 <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저 구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시시오.》

책임비서의 말을 들으며 장군님께서는 공장건물의 벽에 새긴 구호를 보시었다. 《첨단을 돌파하라!》

참으로 사랑하시는 구호였다. 저 구호와 함께 인민을 이끌어 첨단들의 높은 고지를 점령해온 혁명의 강행군길들이 눈앞에 삼삼하시였다. 《이제는 더 높은 고지가 그이의 행군길앞에 서있었다. 그것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장군님 스스로가 정해놓으신 최첨단의 고지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뜨거운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이제는 <첨단>이라는 글자앞에 <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돌파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최첨단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장군님, 그래서 저희들은 <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로 바꿔어붙이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최첨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기념사진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첨단>이 아니라 <최첨단>이라고 말씀하시였기때문에 그 공작 동무들이 그날로 구호를 교체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도 교체했습니다.》

지배인과 책임비서가 절절하게 드리는 말씀이 여운을 남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자강도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금치 못하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중소, 저 구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었다. 《<최첨단> 구호가 잘 나와야 합니다.》

깊은 뜻을 새겨주시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 매일이면 신문과 TV로 나가게 될것이다. 사람들이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자는 것이 장군님의 의도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장군님, 그래서 저희들은 <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로 바꿔어붙이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최첨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기념사진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첨단>이 아니라 <최첨단>이라고 말씀하시였기때문에 그 공작 동무들이 그날로 구호를 교체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도 교체했습니다.》

지배인과 책임비서가 절절하게 드리는 말씀이 여운을 남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자강도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금치 못하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중소, 저 구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었다. 《<최첨단> 구호가 잘 나와야 합니다.》

깊은 뜻을 새겨주시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 매일이면 신문과 TV로 나가게 될것이다. 사람들이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자는 것이 장군님의 의도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장군님, 그래서 저희들은 <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로 바꿔어붙이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최첨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기념사진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첨단>이 아니라 <최첨단>이라고 말씀하시였기때문에 그 공작 동무들이 그날로 구호를 교체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우리도 교체했습니다.》

지배인과 책임비서가 절절하게 드리는 말씀이 여운을 남기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자강도로동계급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금치 못하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중소, 저 구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었다. 《<최첨단> 구호가 잘 나와야 합니다.》

깊은 뜻을 새겨주시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 매일이면 신문과 TV로 나가게 될것이다. 사람들이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자는 것이 장군님의 의도였다.



리명수혁명사적지에 있던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본보기자 전성남 찍음

깊이 새겨주신 인민관

우리 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실천활동의 첫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이 놓여있다. 하는 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늘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자그마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결을결을 손잡아 이끌어주소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의 의도대로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민생활문제를 훌륭히 풀어나가는 일군이 당에 진실로 충실하고 담을 진실심으로 받드는 일군입니다.》

평양시의 어느 한 곳에 도시건설전망계획에 따라 중요대상건물을 임대세우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는 잠시도 멈춰서서는 안되는 정미공장과 기름공장이 있었다. 정미공장은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할 쌀가루를 맡고있어

중요했고 기름공장 또한 기름뿐 아니라 비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므로 소중히 할수 없는 대상이었다. 그런데 새로 임대세워야 할 대상건물 역시 국가적으로 절실히 필요한것이였다. 일군들은 토의를 거듭한 끝에 중요대상건물건설을 먼저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주제67(1978)년 6월 어느날 이 사실을 보고받은 인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신중히 안색을 지으시고 어미이수령명제를 평양시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그처럼 심리하고계시는데 정미공장과 기름공장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철거시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물중을 하나를 살린다고 하면서 인민생활문제를 소홀히

혁명적군중로선관철의 중요한 요구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당의 결심은 곧 우리 인민의 실천으로 되고있으며 인민의 요구와 의사는 우리 당의 정책으로 되고있다. 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조국번영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선군조선의 현실은 우리 당이 혁명적군중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빛나게 구현해온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하는것은 혁명적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이다. 우리 당의 군중로선은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이다. 군중로선의 직접적인 관철자는 일군들이다. 일군들의 어깨에 당의 로선과 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모든 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인민대중이 어머니당의 사랑과 은정을 실체험을 통하여 가슴깊이 느끼고 애고전투장마당에서 영웅적위훈을 꽃피워야 할수 있다. 그러면 당의 군중로선 관철에서 나서는 중요요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것이다. 어미이수령명제는 생전에 당위원장이라는 이름을 당비서, 당책임비서로 고치도록 하시면서 비서, 책임비서 신분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가르치시었다.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

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전사, 제자이며 인민의 신뢰를 받는 일군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은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고 선생이며 혁명의 주인이고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우리 장군님의 제일 큰 기쁨은 인민의 행복이고 가장 큰 분노는 인민의 존엄과 리익에 대한 침해이다. 우리 일군들이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관을 따라배우는것이다. 혁명적군중관점을 바로잡고 대중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일군, 특전과 특혜를 바라지 않고 인민들과 똑같이 청렴하게 생활하는 일군,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말하고싶어하는 친근하고 소탈하고 진실한 일군, 인민들의 리익이 침해당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고 투쟁하는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의 지휘선원이며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일군이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있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당이 준 정치적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하기에 이 땅에 생을 문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굳게 믿고 따르는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혈연적관계는 중요하게 대중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진 일군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사람들의 정치적생명과 관련한 문제에서 혁명적정직성, 신중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주관주의를 범하거나 편견에서 사로잡히면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이 흠집이 가게 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에 충실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잘못 평가될수 있으며 생위할수 있는 군중도 잃어버리게 된다.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따듯이 보살펴주는것이 우리 당의 군중로선의 요구이다. 오늘 우리 일군들속에는 당의 군중로선을 높이 받들고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일군들이 수없이 많다. 대중이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생명수로 간직하고 살도록 늘 일깨워주고 이끌어주는 일군, 누가 보진말건, 알아주진말건 묵묵히 향심적으로 일하는 공로자, 혁신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에게 대한 평가사업을 잘해주는 일군, 사람들의 사소한 마음속고충도 남받지 않고 그들과 그들의 얼굴에 그들이 지지 않게 따듯이 돌봐주는 일군... 우리 혁명대에 이런 일군들이 있기 에 우리 당과 대중의 혈연적관계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있었다. —그것은 또한 인민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인민생활상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는것이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을 이어가고계신다. 포전건물을 건 고결이이며 일군들을 위한 방항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평범한 경영공방에서 생산하는 파자의 맛까지 해아려보시면서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잘사는 인민으로 내세우시려고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분위 위대한 장군님이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을 전투에서 이끌어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는 우리 일군들의 최고귀강이다.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생활관철을 현실로 꽃피워야할 때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게 된다. 지금은 간강, 원강, 신발, 천을 비롯한 기초식품, 인민소비품들이 모자랄새라 늘 걱정거리로 안고 뛰고 또 뛰는 일군, 한알의 낱알이라도 생산하면 인민들의 밥그릇을 넓혀주려고 눈동름, 발이랑을 매추잡수 하는 일군들이 많아야 한다. 인민들의 먹는물문제와 빨래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안들을 내놓고 완강하게 실현해나가는 일군의 충무, 인민성이 높은 일군이여 자기 집조진은 어려워도 인민들에게는 좋은 살림집을 마련해주는 일군은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해나가는 일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후방사업을 잘하는 일군이 군중관점을 바로선 일군, 당의 군중로선을 심장으로 걸수하고 관철해나가는 인민의 총부추는 일군이 되시라. 인민을 보기에 그대 그 주인인 사람을 먼저 보고 그대의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은 군중로선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한 요구이다. 종일민들에게 부식물, 빨감을 보장해주며 살림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사업을 통해 크게 벌려나가면서 학습과 식량, 문화후생시설도 잘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해나가는 일군을 대중은 우리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 그리고 대중은 이런 일군들을 통하여 우리 당의 고티마은 언덕을 심장으로 느끼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혁명의 천지대본인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나가야 할것이다. 김 영 민

은틀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 하는 합일백제삼합가자들의 회상기학을 통하여 자강도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합일혁명투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품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매일 회상기학공제회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모두가 그에 기초하여 학습을 실시하고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한편 독보와 실패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회상기에 담겨진 내용을 환히 알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들끓는 현장에 내려가 회상기의 내용

을 가지고 화신식정치사업을 자주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청년방구에 나간 한 일군을 회상기학을 통하여 합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 《하차 고결산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높여 발휘하여 맡겨진 임무를 한치 틀림 없이 결사관철한 합일혁명투사들의 투쟁이야기는 모두의 가슴을 격동시켰다. 합일혁명투사들의 투쟁정신을 더욱 깊이 간직할 광부들은

그날 작업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회상기학을 통하여 이곳 광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합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정신을 배워나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고 더 많은 성과를 생산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로동동원원 심 윤 섭

모든 힘을 인민생활대고조어로! 공동시설에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봄철영농전투를 힘있게 다그친다

선진영농기술과 씨뿌리기작전

안악군 덕성협동농장에서

씨뿌리기작전이 다가오고 있는 요즘 온천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불리한 조건에서도 씨를 뿌릴 수 있게 모판마다 부식토와 흙보산비료를 충분히 장만해놓고 자재들도 확보해놓았다. 특히 씨뿌리기작전에서 주목되는 것은 선진영농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현대의 농사는 과학농사이며 모든 영농작업이 기술작업입니다.》

씨뿌리기작전이 한창이던 어느날이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군의 방은 밭길도둑 불이 꺼질 줄 몰랐다. 당면한 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해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씨뿌리기에서 선진영농기술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놓고 시작된 기사장의 토론이 일군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서 겨낸 감자종자를 50%정도로는 더

은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운물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정모당 수확고를 1.3배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농장들의 실정에서 별로 물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뿐이 아니다. 벼씨앗처리에도 선진영농기술을 받아들이면 뿌리와 싹의 성장을 촉진시켜 싹트는 물을 높일 수 있다. 이 방법 역시 간단하며 원도가 되면 뿌리와 싹의 성장을 촉진시켜 싹트는 물을 높일 수 있다.

그에 따라 삼산협동농장에 내려간 경영위원회일군들은 밭을 걷고 나서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며칠 후 진행된 보여주기사업에 참가한 모든 농장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선진영농기술을 대담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올해 농사에서 성과를 올릴 수 없다는 것, 일군들부터 기술수준을 높여 작전과 지도를 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야 온 군에 과학농사의 열풍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보여주기사업을 통하여 선진영농기술의 우월성을 다시금 깨닫는 일군들이 새로운 신심을 안고 농장으로 달려갔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농장으로 내려가 선

진영농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기술적지도를 짜고 들었다. 이와 함께 과학농사에서 농장기사가, 작업반기술원들의 역할을 높이고자 하고 기사장이 농장들의 기술력향상을 책임지고 군의 작전과 지휘에 따라 모든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는 규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였다.

또한 농사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이 선진영농기술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특별한 관심을 돌리었다. 경영위원회에서는 모든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초급일군들이 모전에서 농장원들에게 선진영농기술을 알기 쉽게 해설해 주면서 실천적모범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참으로 좋았다.

일군들이 현실에 몸을 잠글 때 기술적지도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중시한 경영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씨뿌리기에서 선진영농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맞게 일군들이 농장을 맡고 내려가 모전에서 농장원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기술적지도를 강화하였다.

그러하여 경영위원회일군들은 농장일군들과 함께 모판용 거름과 부식토, 흙보산비료, 모판자재, 종자처리장준비물 등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나갔다. 또한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버모를 튼튼히 키워낸 지난해 농사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이 현실에서 찾아낸 또 한가지 문제는 물보장대책이었다. 씨뿌리기성과는 물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더우기 봄철에 가물것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물잡이를 적극 앞세우지 않고서는 씨뿌리기의 질은 물론 모기기에 있어서의 성과를 담보할 수 없었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농장들에서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동원하여 보조수원의 물을 모판에 끌어가기 위한 물잡이를 빨리 제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앞세워 메고 달랐다.

결국 씨뿌리기작전에서는 큰 성과가 이룩되게 되었다. 씨뿌리기에 선진영농기술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을 빈틈없이 하고 그 준비사업을 내밀고 있는 이곳 경영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은 반바람만 한 것이다.

본사기자 박 철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부식토를 실어내기 위한 일정계획을 잘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작업반과 분조들에서는 당구지를 비롯한 합리적인 운반수단을 리용하여 질 좋은 부식토를 골라서 모판마다 제 량대로 정확히 실어내었다.

농장의 모판들에는 부토재료가 툽구리마다에 넘쳐나게 담겨져 있었다.

특히 제 14작업반의 농장원들은 필요한 부토재료를 채로 보드랍게 친 다음 그것이 눈비에 젖을새라 툽구리마다에 잘 보관해놓았다. 농장에서는 모든 작업반들이 준비가 오기 전에 부토재료를 툽구리마다에 채워놓도록 하는 한편 비가 와도 젖지 않게 하는 사업도 빈틈없이 내밀었다.

농장에서는 바람막이바자를 집적으로 여기 위한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바람막이바자를 잘 쳐야 모판의 온도를 높여주어 씨뿌리기를 제철에 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영농실현을 통하여 체험한 일군들은 올해에도 바람막이바자를 바람 한점 스며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결과 모든 작업반들에서는 집적으로 엮은 바람막이바자를 많이 쌓아놓았다.

농장에서 모판씨뿌리기를 앞

선천군 안상협동농장에서

선천군 안상협동농장 일군들이 씨뿌리기작전에서 선진적인 판심을 들린 것은 기후조건이 좋았기 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발전시키고 적용하는 데서도 자연기후조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견되는 3월의 기후조건에 맞게 씨뿌리기를 적기작업의 원칙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 일군들의 일치한 견해였다.

그 방도를 찾기 위하여 일군들은 지난해 봄철에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모판 판심을 잘하였던 제 1작업반의 경험을 분석해보기로 하였다.

작업반장 김봉준동무와 무릎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파정에 일군들은 그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모판자재를 넉넉히 마련해 놓고 모판안의 온도를 높인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즉시 이 작업반의 경험을 다른 작업반들에 일반화하였다.

농장원들속에 들어간 일군

페열을 리용하여

은과군 읍협동농장 제 1작업반원들

은과군 읍협동농장 제 1작업반에 가면 초무연탄페열로 흙보산비료를 생산한다는 남다른 자랑을 듣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유기질비료문제는 거름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풀수도 있고 흙보산비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풀수도 있습니다.》

작업반에서는 초무연탄을 먼저 소석회생산을 리용하기 시작하였다.

초무연탄은 무연탄보다 발열량이 낮다. 하지만 이 작업반에서는 석회로 보온이 잘되게 쌓아 소석회생산을 마음먹은대로 하고 있다. 해마다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소석회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소석회는 논밭에 최고로 남는 량이다.

석회로 페열은 흙보산비료 생산기지의 온도를 보장하는 데 쓰이고 있다. 작업반에서 페열을 효과있게 리용하면서부터 흙보산비료의 질과 생산량이 더 오르고 있다.

초무연탄페열을 리용하여 흙보산비료를 생산하면서부터 알곡생산이 오르고 있다.

본사기자 김 창길

앞그루감자농사준비에서 나서는 문제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알곡생산은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앞그루 감자농사준비를 잘해야 한다.

우선 감자종자씨뿌리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자종은 짙고 실해야 한다. 대체로 움에서 겨낸 감자종자는 18~20°C의 온도, 80~90%의 습도에서 15~20일 동안 충분히 싹피우는 것이 좋다.

씨뿌리기시작시기는 모내기작업에서 모종류별기일수에 해당하는 모기일수를 먼저 시기로 된다.

팽상모의 씨뿌리기는 발령상대인 경우 5°C정도, 발령상대인 경우 7°C정도, 모를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 모의 로화를 막기 위하여 평당 씨뿌리량을 정확히 보장하며 규정량이상 뿌리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속성모를 비롯한 경제적 파성이 큰 모기종은 발령일수를 옮겨 배합하여 6월 10일까지 모내기를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5월 하순에 벌 중간농종과 함께 6월 상순에 벌 농종들을 5월 하순에 속성모로 내면 모내는 기간에 영농공정의 긴장성을 풀면서 6월 상순까지 원그루모내기를 안전하게 끝내어 총수출을 높일 수 있다.

종자소독과 씨앗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씨앗고르기 방법으로 여러가지 소독방법을 잘 적용하여야 한다. 씨앗처리를 실정에 맞게 하여 모를 튼튼히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안악군 덕성협동농장에서

안악군 덕성협동농장을 가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씨뿌리기준비를 맡아준 씨뿌리기준비부서를 맡고 있는 모판기사를 만나 보자. 모판기사는 모판기사를 맡고 있는 모판기사를 만나 보자. 모판기사는 모판기사를 맡고 있는 모판기사를 만나 보자.

비무스의 증식이 억제되어 감자의 생육과 수확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씨이 큰 감자종자의 팽상처리를 잘해야 한다. 앞그루감자종자의 팽상처리는 15~20일 동안 하는 것이 좋다.

팽상처리모판은 해비침울이 높은 곳에 만들어 땅 밑에서 올라오는 찬 기운을 막기 위한 차단체로와 모판흙갈아주기, 물

수기와 비닐박막의 수기를 철저히 기술적으로 구대도 해야 한다.

특히 씨의 끝눈이 우로 향하게 감자종자를 고루 퍼놓아야 하며 오후 4시경에는 텃밭과 나뭇을 덮어주는 밤온도를 6°C 이상 보장하여 한다.

이와 함께 앞그루감자모판은 땅이 녹으면 인차 갈아엎고 씨뿌리기를 하며 심기 3일전에 이랑을 짓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과학원 실장 조영운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고원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도와 군들에서는 트랙도르와 여러가지 농기계를 늘리는데 맞게 부속품공급과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공동시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고원군에서 농기계 작업소와 농기구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놓고 트랙도르를 비롯한 농기계수리와 농기구생산 및 수리정비에 힘을 넣고 있다. 또한 비닐박막 생산을 다그쳐 농사차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풀어가고 있다.

군에서 특히 자랑할만 한 것은 대용연료로 전기를 생산하

3월 하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업기술적대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업생산은 시기성을 요구하는 것만큼 농사에서 적기작업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3월 중순부터 하순까지의 기간에 우리 나라의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기온은 평년정도이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고 한다.

평년기온을 보면 3월 중순에는 평양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강원도에서 0.5~4.0°C, 량강도에서는 -3.0°C로서 평년정도이고 지난해에 비하여 전반적지방에서 0.9~3.4°C 높을 것이라고 한다. 하순에는 평양시, 평안북도, 황해북도, 량강도, 함경북도, 강원도에서 2.8~6.0°C, 량강도에서는 -0.4°C로서 평년정도이고 지난해에 비하여 전반적지방에서 0.8~4.4°C 높을 것이라고 한다.

강수량은 3월 중순에는 평양시, 평안북도, 황해북도, 함경북도, 강원도에서 2~5mm로서 평년보다 1~4mm 적고 량강도, 량강도에

금야군관개관리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사회주의협동농장에 더 많은 관개용수를 보내주기 위하여 양수기계에 대한 수리정비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현장에 내려간 일군들은 기

지대와 년도,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8월 15일을 중심으로 8월 10일~20일 사이이다.

씨뿌리기시작시기는 모내기작업에서 모종류별기일수에 해당하는 모기일수를 먼저 시기로 된다.

팽상모의 씨뿌리기는 발령상대인 경우 5°C정도, 발령상대인 경우 7°C정도, 모를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 모의 로화를 막기 위하여 평당 씨뿌리량을 정확히 보장하며 규정량이상 뿌리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속성모를 비롯한 경제적 파성이 큰 모기종은 발령일수를 옮겨 배합하여 6월 10일까지 모내기를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5월 하순에 벌 중간농종과 함께 6월 상순에 벌 농종들을 5월 하순에 속성모로 내면 모내는 기간에 영농공정의 긴장성을 풀면서 6월 상순까지 원그루모내기를 안전하게 끝내어 총수출을 높일 수 있다.

종자소독과 씨앗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씨앗고르기 방법으로 여러가지 소독방법을 잘 적용하여야 한다. 씨앗처리를 실정에 맞게 하여 모를 튼튼히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빛에 의한 말리기를 규정대로 하여야 작나온 물을 높이고 총하를 줄여 평당 이삭수를 보장할 수 있다.

강냉이종자는 비중법에 의한 씨앗고르기보다 체에 의한 씨앗고르기를 하여야 씨앗의 크기와 질별도 균일하게 골라진다.

4월에 낮은 기온이 지속되고 가을이 예전되는 조건에서 영양단지를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영양단지는 질 좋은 부식토가 부피비율로 70%정도 되게 만들어 영양단지 기본기는 5×5×5cm정도의 거품을 하층에 실정에 맞게 6×6×6cm정도로 할 수 있다.

강냉이밭따라두기를 질적으로 하여 토양물기증발을 막고 씨불임을 높여야 한다. 모래와 자갈이 많고 토심이 얕으며 기온을 쉽게 타는 밭을 제외하면 모든 밭에서 밭갈이와 씨베치기, 이랑짓기, 마지베치기 등 땅따루기를 빨리 진행하여 토양물기가 같이 층에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땅따루기를 일찍 할수록 비로 하여 흙이 층에 고르게 분포되고 흙덩어리가 적어져 강냉이씨불임을과 모실들이 높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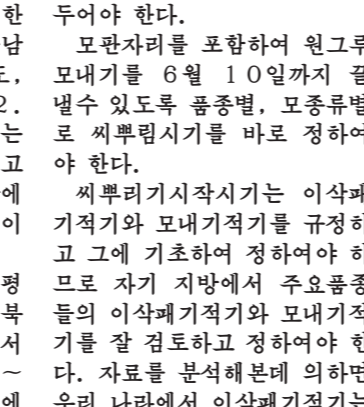
농업과학원 농업정보기술연구센터 소장 박 광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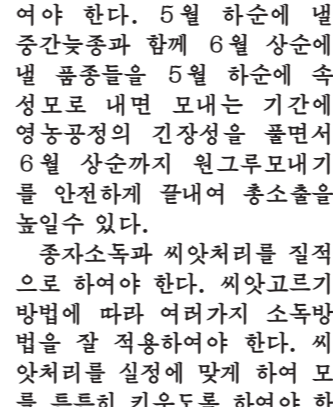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벼팽상모판만들기를 잘해나가고 있다. —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 리진명 찍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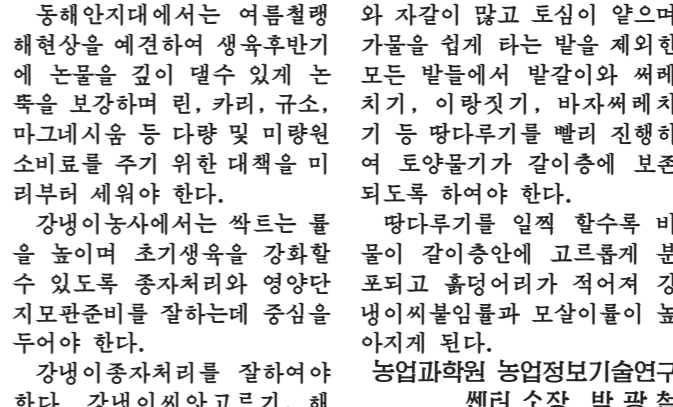
금야군관개관리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사회주의협동농장에 더 많은 관개용수를 보내주기 위하여 양수기계에 대한 수리정비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 현장에 내려간 일군들은 기



당장이라도 물을 풀수 있게



관리소에서는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당면한 양수기수리를 위한 기술혁신투쟁을 적극 벌려냈다. 공무작업반의 기술자, 로동자들이 서로의 창조적



지체를 합쳐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이곳 작업반원들은 부족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임을 만들어내면서 양수기수리정비

위대한 어버이사랑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화초연구 및 생산기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저지도를 받은 평양화초연구소에서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온갖 꽃 만발하게

꽃은 아름다운 상징이고 사람들의 문화정서적인 생활을 풍만하게 하여준다. 하기에 누구나 꽃을 사랑하고 꽃속에서 살며 배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에 넘쳐 생활을 보다 아름답게 꾸려간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된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빛깔 좋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갖가지 꽃을 자배우기 위해 고심어린 탐구와 창조를 거듭해 오고 있다. 그들이 바로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평양화초연구소의 과학자들이다.

이들은 뜨거운 어버이사랑이 하루빨리 인민들의 생활에 가닿게 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라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갖가지 꽃들을 수많은 재배육종하였다. 그리하여 화초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확고한 전향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빠른 시일안에 인민생활 문제를 풀고 우리 인민들이 문화적인 환경에서 고상하고 문명된 생활을 누리게 하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의도이고 결심입니다.》

연구소가 필요한 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추고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화초연구 및 생산기지로 전변되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향찬란한 강성대국의 매일과 더불어 우리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길 용기를 품으시고 몸소 연구소터전을 찾아주시였으며 연구사업에 필요한 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추도록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뿐만아니라 화초연구력량을 잘 꾸리고 연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주며 화초종자에 대한 개량사업을 적극 벌이고 화초육종에 생물공학적수법들을 널리 받아들일데 대한 문제 그리고 연구소의 관리운영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진정 어버이장군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안겨주시려 바치신 크나큰 심혈과 로고는 끝이 없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이곳 연구사들을 온 나라가 알도록 내세워주시고 연구소에서 이룩한 성과도 고스란히 그들에게 안겨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을 일러에 모셨던 그날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연구소소장은 격정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자나깨나 바라고바라던 그 소원을 이루었으니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종업원들은 최상의 영광과 최대의 행복을 받아안은것이다.

지난 3월초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경도양에서 일군들로부터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지난 10여년간 화초에 대한 연구사업을 꾸준히 벌여 수많은 꽃을 재배육종하고 현명사적지와 원림단위들에 도입한 정형을 들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화초재배온실은 꽃나리, 천수국, 향설란, 매화들 비롯한 갖가지 꽃들이 앞을 다투어 활짝 피어나 꽃바다를 이루고있었다. 그야말로 하나의 큰 화초원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윽한 향기를 가득 풍기며 활짝 피어있는 수많은 꽃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갖가지 꽃을 안겨줄수 있게 될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화초연구 및 생산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는 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전제 종업원들의 수고를 칭찬하시였다.

하지만 먼저 인사를 받으셔야 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몸소 연구소의 터전도 찾아주시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고 물발현운반체를 제작하시였다.

이들은 비상한 창조 정신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진지하게 연구하시며 전자의 색조조절유전자와 식물발현운반체를 제작하였는데 이 운반체를 진지하게 향상시켜 나간다고 심비디였다.

굳건히 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어려와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화초재배온실을 돌아보시면서 수도의 곳곳에 꽃밭을 많이 내놓는데 대하여서와 꽃밭들의 설계를 표준화하여 척 보아도 꽃밭이라는것을 한눈에 알수 있게 하라고 따듯이 이르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부모와 스승, 친구와 편인들에게 축하연설을 보내는것보다 꽃을 주는것이 더 의의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꽃밭이 많아야 한다고 거듭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생물공학연구실을 비롯한 연구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현대적인 설비들의 가동상태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래동안 화초연구사업에 종사하면서 수많은 연구성과들을 이룩한 과학자들을 친히 만나시며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신 그날의 영광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더욱 분발나서고있다.

내 조국강산에 온갖 꽃이 만발하게 하자!

—인민들이 좋아하는 꽃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자!

이런 드높은 결의안고 이들은 인민들에게 문화정서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는데 크게 기여하기 위해 화초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철훈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화 초 재 배 온 실 을 찾 아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흠모하고 받들며 당의 구상을 확고히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소장 방학순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화초재배온실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저모드르며 《아!》 하는 탄성을 울리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우리 온실을 보고 청춘화원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공중들이 컴퓨터로 조종되는 현대적인 온실. 그 안에서 저저마다 아름다운 꽃바다를 펼친 갖가지 꽃들, 온실안을 가득 채운 그윽한 향기...

그야말로 큰 화초원을 방불케 하였다.

그 꽃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을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어려와 가슴이 찢어졌다.

숭고한 그 뜻을 심장에 새기고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라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갖가지 꽃들을 심기 위해 자배우기까지 과학자들이 바친 노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조직배양에 의한 화초번식 방법을 확립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해결하여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수많은 꽃들을 재배육종하였다.

이들은 지난 기간 김정일화초재배기질, 진디물저항성유전자에 의한 사철국화의 형질전환 등 여러건의 발명을 내놓았으며 코스모스와 장미, 튜립, 꽃매미꽃을 비롯하여 좋은 화초들을 온 나라에 퍼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새 기술들을 현실에 도입하였다.

또한 《화초재배학》을 비롯한 많은 참고서들을 집필하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화초들의 특성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그 재배에서 나서는 기술도 생의껏 배워주었다.

이곳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심비디움을 육종하여 대량적으로 증식시킬수 있는 화초원들과 온실을 열었는데 여기에 바치신 이들의 피라는 탐구열의는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우리는 온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인 연구사 리용호동무도 만날수 있었다.

크나큰 영광을 지닌데 대해 축하하는 우리의 인사를 받으며 리과학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이 갖가지 꽃을 가꾸며 문화적인 환경에서 고상하고 문명된 생활을 누리게 하시고 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우리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떤 칭찬설비들을 초과하여 리용하여 화초연구와 생산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어 꽃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실험공처녀들도 만나보았다.

소장동무는 꽃재배육종에서 실험공처녀들이 큰 몫을 맡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기술인 노력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정형외동무는 꽃재배육종은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한 생육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없이 뜨거운 열정을 바쳐왔으며 하나하나의 꽃을 그야말로 품에 안아 키우듯이 재배했다.

우리는 온실을 돌아보면서 심비디움, 향설란, 천수국 등 꽃화분마다에 걸쳐있는 실험공들의 리습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 종업원들은 조국강산에 온갖 꽃이 만발하게 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문화정서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할수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 화초연구와 재배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인민을 위한 어버이사랑속에 백화기 만발하는 아름다운 조국의 매일을 환희롭게 그려보며 우리는 온실을 걷었다.

본사기자 김경철



수종이 좋은 화초를 생산하기 위한 조직배양연구사업을 잘하고있다. 본사기자 찍음

유전자전이 《사철국화1》호 육종

김명선동무를 비롯한 생물공학연구소의 사철국화에 유전자를 전이시켜 물결을 적게 쓰면서 태양열을 전수하여 쉽게 꽃을 피울수 있는 《사철국화1》호를 육종해내는데 성공하였다.

유전자전이 《사철국화1》호의 생물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꽃이 크고 꽃피기

까지의 기간이 빠르며 태양열을 전수하여 꽃핀 물이 높다.

또한 가을에 전지는 능력이 종전의 국화에 비하여 2-3배나 높고 뿌리활착률도 높고 자배우기를 위한 저온요구정도 적다.

그리고 판상성로서 꽃가루가 생기지 않고 영양번식하므로 사마과 환경에 안전 국화육종과 심비디였다.

과학자들은 수집된 유전자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리용할수 있도록 재조합하여 식물발현운반체를 제작하시였다.

이들은 비상한 창조 정신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진지하게 연구하시며 전자의 색조조절유전자와 식물발현운반체를 제작하였는데 이 운반체를 진지하게 향상시켜 나간다고 심비디였다.

과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꽃나리, 불국화, 초점란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꽃들을 조직배양의 방법으로 수없이 번식시킬수 있게 하였다.

이들의 불타는 탐구열의와 창조적열정은 이 파업을 수행하는것은 로동시대 작가, 예술인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더없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른바 침투기 밤늦게까지 창작가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예술영화 《피바다》의 대본초고를 한창 보시면서 의견을 주기도 하시고 친히 수정가필도 하시였다. 그리고 연막이 자욱한 야외촬영장에도 나오시며 무려 8시간동안이나 촬영장면을 지도하시였다.

예술영화 《피바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백여차례에 걸치는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주제 58(1969)년말에 우리나라 영화예술의 혁명전풍을 마련한 첫 영화로 훌륭히 완성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40여년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었다. 오늘도 비상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예술영화 《피바다》는 새 세계 명작영화창작의 선구자가 될 리상과 포부를 품은 세 세대 영화창작가들에게 있어서 동시대의 그 어떤 명작영화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교과서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수정

활기있게 진행되는 봄철위생월간사업

위생월간사업의 성과여부는 위생방역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이것을 자각한 문천시위생방역소의 의료일군들이 봄철위생월간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려면 위생방역기구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방역소에서는 시안의 공장, 기업소, 등, 인민반을 비롯한 모든 단에서 봄철위생월간사업에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일을 짜고치고있다.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가시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고있다.

소장 한춘진, 과장 박선일동무를 비롯한 방역소일군들은 시안의 상하수도망과 건물들의 벽체와 울타리보수, 도로정리

등을 계획적으로 내버는 한편 집집마다 회합을 다시하여 마물과 거리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또한 공공위생시설물을 비롯한 문화휴생시설들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과 함께 소독사업을 적극 벌려 모든 집들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방역소에서는 주민들속에서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한 위생건설사업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진행하고있다.

특히 봄철건강상식들과 여러 가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상식자료들을 잘 알려주는 데 높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시안의 곳곳에 위생건설전판물들을 게시하고 방역소의 일군들이 담당단위들에 내려가 위생건설을 정상적으로 진행

하고있다.

근로단체조직들과 보건부분의 일군들이 봄철위생월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해두고있다.

지금 시안의 많은 지역과 단위에서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있다.

방역소의 일군들은 담당지역과 단위들에 나가 실례를 매일 같이 료해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위생월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에서 위생월간사업의 행정성을 수시로 장악하고 통보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고있다.

문천시 위생방역일군들의 높은 책임성과 역할에 의하여 지금 시의 위생월간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진철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모를 박고

의학과학원 산업의학연구소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산업의학분야에서 제기되는 과학연구과제를 해결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소장 김영조, 부소장 로태동동무들은 모든 과학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전근열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치료예방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치고있다.

과학자들은 로동생활과정에 생겨난다는 여러가지 병들에 대한 병리학적인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정확한 진단을 내릴수 있는 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과학자들은

여러가지 약물을 개발하는것과 함께 생산현장에서 나가 근로자들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과학연구활동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달려나간 과학자들은 로동위생학적 기준을 높게 정하고 그에 맞게 허용한계를 설정하였으며 여러 가지 약을 개발하여 그들의 로동능력을 과학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해주고있다.

과학자들은 농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기 위한 첨단과학연구에 힘을 넣고있다.

관망자들이 나가있는 과학자들은 자체로 만든 여러가지 건강요물들을 공급하면서 치료예방사업을 잘하고있으며 의료설비와 의약품도 마련하여줌으로써 환부들을 선진증상으로 힘있게 불려드리고있다.

과학자들은 현시기 모든 부문에서 컴퓨터리용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맞게 컴퓨터작업과정에 여러가지 인자들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화시켜 컴퓨터리용자들의 건강을 더욱 보호할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놓았다.

본사기자

영화예술의 혁명전풍을 마련한 첫 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의 깊고 웅대한 혁명전풍예술 전통은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이후의 고전적명작들로 하여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문학예술의 혁명전풍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 첫 출발점으로 된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옮기기 위한 창조사업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가운데서도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연구 《피바다》를 영화로 옮기는것을 영화예술의 혁명전풍을 마련하는 첫 사업으로 보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는 작품이 제기한 사회정치적문제의 필박성과 심오성, 생활현의 풍과 깊이, 형상수단과 수법의 다양성과 풍부함이 하여 혁명적문학예술이 도달하여야 할 최상의 높이에 이른 기념비적 명작이었다.

여기에는 주체적문제사상과 리론, 창조세계와 방법, 고귀한 창작경험과 업적이 집대성되어있으며 지난날의 문학예술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주체적문학예술의 면모와 특징이 다 밝혀져있었다.

무엇보다더하여 이러한 명작을 영화로 옮겨야 문학예술의 혁명전풍을 빛내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고 그에 토대하여 주체시대의 새로운 영화예술을 창조하고 나아가서 문예예술전반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영화예술발전의 중심고리 역할을 맡고있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57(1968)년 4월 중순 백두산창작단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옮길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옮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무를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소망이며 우리 시대 혁명적문학예술의 필박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이 과업을 수행하는것은 로동시대 작가, 예술인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더없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른바 침투기 밤늦게까지 창작가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예술영화 《피바다》의 대본초고를 한창 보시면서 의견을 주기도 하시고 친히 수정가필도 하시였다. 그리고 연막이 자욱한 야외촬영장에도 나오시며 무려 8시간동안이나 촬영장면을

지도하시였다.

예술영화 《피바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백여차례에 걸치는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주제 58(1969)년말에 우리나라 영화예술의 혁명전풍을 마련한 첫 영화로 훌륭히 완성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40여년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었다. 오늘도 비상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예술영화 《피바다》는 새 세계 명작영화창작의 선구자가 될 리상과 포부를 품은 세 세대 영화창작가들에게 있어서 동시대의 그 어떤 명작영화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교과서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수정

오성산을 안고 사는 마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참된 삶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것을 똑바로 알고 당과 수령을 같이하는 길에 이 헌명을 빛나게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머칠진 이른바인 평강군 읍 126인민반에 사는 김금실동무는 두 통의 편지를 받았다. 한통은 원산의 예술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딸이 보내온 것이고 다른 한통은 조소에서 보내온 것이였다.

《어머니, 저는 오늘 학교동무들과 선생님들로부터 원인에 닿지 않는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다는 말을 듣고 오성산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는 오성산가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오성산의 딸로 살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그날의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말합니다.》

딸 선화의 편지를 든채 김금실동무는 오성산의 하늘가를 점도록 바라보았다.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머니 전 오늘 군사부무는 마치고 초소를 떠나게 됩니다.

평강군 읍 126인민반 김금실동무

초소를 떠나기에 앞서 우리를 위해 짐을 바치는 어머니에게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 보내준 고추장맛을 평생 잊을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원근에 바치신 그 불같은 애국의 마음은 제대군인인 저의 발걸음을 고함이지 아니라 회천발전소건설장으로 향하게 하고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어머니처럼 애국헌신의 나라를 수놓을것이며 영원히 병사로 살겠습니다.》

김금실동무는 미소를 지었다.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원근의 나라에 그에게 이런 자식들이 많이 생기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이름을 위외보느라니 보람이 가슴을 가득히 채웠고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들을 위한 일을 하나라도 더 찾아낸 열매에 가슴이 달아올랐다.

원근은 그의 생활이고 행복이고 긍지였다.

그는 다시금 추억에 잠겼는데, 병사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든 다 찾아낸 나날들이 떠올랐다. 그날 그의 집 방안

에는 늘 콩나물시루가 가득 들어차있었고 벽에는 메주통들이 이 주련이 걸려있었다. 짐승을 우리는 해마다 늘어갔고 여름이면 집트락에 짐승들이 풀러미가 가득 쌓이곤 하였다.

어머니가 언제 잠자리에 들고 언제 잠에서 깨어나는지 자식들도 잘 몰랐다.

김금실동무는 짐승들에게는 확 보하기 위해 어떤 날에는 면걸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좋은 먹이를 찾아 산밭을 돌기도 하였다.

그의 집으로는 딸이다. 해마다 초소로부터 많은 편지가 날아들었다. 자기의 지성어린 원호를 받들어온 병사들이 보낸 그 감사편지들을 밤을 때 마다 김금실동무는 오성산을 바라보며 원근을 더 힘차게 걸어갈 결심을 굳히곤 하였다.

추억에서 깨어난 김금실동무는 편지들을 품에 간수하였다. 그리고는 서둘러 트락에 나갔다. 짐승들에게 먹이를 줄 시간이 된것이였다.

오성산마루에 두둥실 솟아오른 아침해가 그를 따듯이 비추고있었다.

본사기자 리경일

은 늘 콩나물시루가 가득 들어차있었고 벽에는 메주통들이 이 주련이 걸려있었다. 짐승을 우리는 해마다 늘어갔고 여름이면 집트락에 짐승들이 풀러미가 가득 쌓이곤 하였다.

어머니가 언제 잠자리에 들고 언제 잠에서 깨어나는지 자식들도 잘 몰랐다.

김금실동무는 짐승들에게는 확 보하기 위해 어떤 날에는 면걸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좋은 먹이를 찾아 산밭을 돌기도 하였다.

그의 집으로는 딸이다. 해마다 초소로부터 많은 편지가 날아들었다. 자기의 지성어린 원호를 받들어온 병사들이 보낸 그 감사편지들을 밤을 때 마다 김금실동무는 오성산을 바라보며 원근을 더 힘차게 걸어갈 결심을 굳히곤 하였다.

추억에서 깨어난 김금실동무는 편지들을 품에 간수하였다. 그리고는 서둘러 트락에 나갔다. 짐승들에게 먹이를 줄 시간이 된것이였다.

오성산마루에 두둥실 솟아오른 아침해가 그를 따듯이 비추고있었다.

본사기자 리경일

염주군 하석협동농장 수리분조 전정판동무는 처녀시절부터 20여년 동안 수리분조원으로 일해오며 농장일군들과 트랙트 운전수, 공장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중학교졸업을 앞둔 시기에 학과에서 졸업 오다가 보습때문에 애쓰는 트랙트 운전수로서의 일손을 도와주었다. 그는 비록 녀성의 몸이지만 농촌기계에 대해 적극 이바지하는 수리분조원이 될것을 결심하였다.

후에 그는 낮이나 밤이나 꾸준히 노력하여 높은 기술능력을 소유하고 무슨 일이나 막힘이 없게 해내는 당당한 수리분조원이 되었다.

피라는 노력을 기울이며 농기계, 농기구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애쓰는 그는 군적으로 소문난 수리분조원이 되었다.

남들이 못한다고 하던 비닐막막성질비닐을 수리분조원에게도 그는 지난 시기 배우고 터득한 기술능력을 발휘하여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로동농원원 정윤복

로씨야연방 외무성 부상일행 귀국

평양 3월 14일 밤 조선 중앙통신) 로씨야연방 외무성

부상 알렉세이 보로딕친과 일행이 14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개부분 일군과 주조 로씨야연방 특명전대사가 접촉하였다.

평양 3월 14일 밤 조선인민군관으로 복무하는 동생이 그의

본사기자 김경철

본사기자 김경철

본사기자 리수정

본사기자 리수정

본사기자 김경일

본사기자 김경일

본사기자 리수정

본사기자 리수정

《림 스피리트》를 재현한 북침핵시험전쟁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8일부터 남조선전역에서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였다.

이 전쟁발장난소동에는 수많은 미제 침략군부대와 남조선피괴군, 예비군이 참가하였으며 최신전쟁장비들과 기동전력수단들이 동원되었다.

우리 공화국을 거대한 내외호전파들의 광란적인 불장난소동으로 북남관계는 다시금 최악의 위기에 처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더욱 증대되었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통치배들의 공모격략의 산물로서 역사적으로 핵전쟁의 불씨를 안고 제재적으로 확대강화되어온 위험한 전쟁소동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북침핵전쟁연습으로 악명떨친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이며 그 복사판이다. 역사적과정을 놓고 보자.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은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미국이 1971년에 배비한 핵무기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실제 사용하기 위해 1960년대말부터 남조선과 함께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는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1969년 《포커스 페티너》작전으로 시작된 남조선미국동맹전쟁연습은 그 이후인 1971년에 《프리덤 볼트》로 이어지고 1976년부터는 《림 스피리트》의 간판밑에 1993년까지 해마다 계속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시》 미국본토의 중원병력을 남조선에 긴급투입하고 현지부력과 협동으로 전면적인 북침공격을 단행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전형적인 핵시험전쟁, 예비전쟁이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발발적으로 벌인 1993년의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으로 우리 공화국에 준전력수단과 선제공격이 실시되었고 조선반도정세가 일축축발의 전쟁집경에 처하였던 역사적 사실은 이 연습의 위형성을 특별히 보여주고있다.

1994년부터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규탄에 부딪쳐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그 공백을 메꾼다는 구실밑에 《련합전시중립연습》을 벌여놓았다.

이 전쟁연습은 일명 《RSOI》 즉 미중립연습의 《수용, 대기, 전방이동, 통합》훈련으로 불리었다. 말하자면 조선반도 《유사시》 미중립연습과 전쟁장비들을 전진지역들에 신속히 전개하고 남조선피괴군과의 전면적인 연합작전에 들어가는 훈련이다.

2001년부터는 주일미군과 미태평양사령부산하 미군부대까지 참가하는 대규모적인 훈련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이 2008년부터 《키 리졸브》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었다.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대규모적인 야외기동훈련이다. 1961년 시작된 이 연습은 1986년부터 《독수리》라는 간판을 달고 미제침략군과 남조선피괴군의 연합훈련으로 해마다 진행되었다.

1999년부터는 훈련지역이 서울이북 군사분계선가까이로 접근한 매우 위험한 실동훈련으로 전환되었다.

야외기동훈련과 특수작전이 배합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2002년부터 《련합전시중립연습》과 통합 실시되면서 그 침략성과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미국이 방대한 미중원부대를 조선전선에 투입, 전개하고 남조선피괴군과 연합하는 《련합전시중립연습》과 공격형의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합쳐놓으면 그것은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과 조금도 다를것이 없다.

2002년 3월 《련합전시중립연습》과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처음으로 통합되어 실시되었는데 여기에 는 규모에 있어서 최대였던 1989년 《림 스피리트》연습의 3배가 넘는 70만명의 병력이 참가하였다.

이 사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련합전시중립연습》과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통합 실시하는 방식으로 내외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중지한 《림 스피리트》를 벌여놓았다. 그 그것을 통해 일의의 시각에 북침핵시험전쟁을 개시할수 있는 준비를 다그쳐왔다는것을 보여준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집권세력의 무분별한 망동에 의해 그 침략적성격과 도발적 내용이 날로 강화되었다.

올해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그 무늬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목밑에 무제한 도발적인 《작전계획 5029》에 따라 감행되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각종 형태의 북침전쟁각본들을 작성하고 보충완성하는 한편 합동군사연습을 그에 따른 실동훈련으로 전환시켜왔다는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7-98》, 《신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30》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신련합작전계획 5012》와 《작전계획 5029》 등은 모두가 북침전쟁연습을 통하여 작성되고 보충완성된것들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불장난소동에 적용된 《작전계획 5029》는 매우 위험한 북침전쟁각본이다. 그에 따라 올해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는 사상 최대로 벌여놓았던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과 대등한 방대한 무력과 함께 전투합성 집단, 전략폭격기 등 최신공격수단들과 기동전략부대들이 수없이 동원되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발발적으로 벌인 1993년의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으로 우리 공화국에 준전력수단과 선제공격이 실시되었고 조선반도정세가 일축축발의 전쟁집경에 처하였던 역사적 사실은 이 연습의 위형성을 특별히 보여주고있다.

1994년부터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규탄에 부딪쳐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그 공백을 메꾼다는 구실밑에 《련합전시중립연습》을 벌여놓았다.

이 전쟁연습은 일명 《RSOI》 즉 미중립연습의 《수용, 대기, 전방이동, 통합》훈련으로 불리었다. 말하자면 조선반도 《유사시》 미중립연습과 전쟁장비들을 전진지역들에 신속히 전개하고 남조선피괴군과의 전면적인 연합작전에 들어가는 훈련이다.

2001년부터는 주일미군과 미태평양사령부산하 미군부대까지 참가하는 대규모적인 훈련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이 2008년부터 《키 리졸브》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었다.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대규모적인 야외기동훈련이다. 1961년 시작된 이 연습은 1986년부터 《독수리》라는 간판을 달고 미제침략군과 남조선피괴군의 연합훈련으로 해마다 진행되었다.

1999년부터는 훈련지역이 서울이북 군사분계선가까이로 접근한 매우 위험한 실동훈련으로 전환되었다.

야외기동훈련과 특수작전이 배합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2002년부터 《련합전시중립연습》과 통합 실시되면서 그 침략성과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미국이 방대한 미중원부대를 조선전선에 투입, 전개하고 남조선피괴군과 연합하는 《련합전시중립연습》과 공격형의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합쳐놓으면 그것은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과 조금도 다를것이 없다.

2002년 3월 《련합전시중립연습》과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처음으로 통합되어 실시되었는데 여기에 는 규모에 있어서 최대였던 1989년 《림 스피리트》연습의 3배가 넘는 70만명의 병력이 참가하였다.

이 사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련합전시중립연습》과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통합 실시하는 방식으로 내외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중지한 《림 스피리트》를 벌여놓았다. 그 그것을 통해 일의의 시각에 북침핵시험전쟁을 개시할수 있는 준비를 다그쳐왔다는것을 보여준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집권세력의 무분별한 망동에 의해 그 침략적성격과 도발적 내용이 날로 강화되었다.

올해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그 무늬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목밑에 무제한 도발적인 《작전계획 5029》에 따라 감행되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각종 형태의 북침전쟁각본들을 작성하고 보충완성하는 한편 합동군사연습을 그에 따른 실동훈련으로 전환시켜왔다는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7-98》, 《신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30》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신련합작전계획 5012》와 《작전계획 5029》 등은 모두가 북침전쟁연습을 통하여 작성되고 보충완성된것들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불장난소동에 적용된 《작전계획 5029》는 매우 위험한 북침전쟁각본이다. 그에 따라 올해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는 사상 최대로 벌여놓았던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과 대등한 방대한 무력과 함께 전투합성 집단, 전략폭격기 등 최신공격수단들과 기동전략부대들이 수없이 동원되었다.

역겹기 짝이 없는 대결망발

극악한 대결망발시 현인력의 못된 기질을 감내 없다. 얼마전 어느 한 토론회장에 나타난 현인력은 지금 북남관계가 《상당히 어렵다》.》느니 뭐니 하면서 저들이 《대화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있다는 왕창같은 수작을 늘어놓았다. 한편 북의 《비핵화》니, 《대의개방에로의 유도》니 하는 대결망발을 늘어놓는것을 잊지 않았다. 나중에는 그것이 《평화의 핵심과제》이고 《대북정책의 근본목표》이므로 다른 론자가 있을수 없다고 못박고 나갔다. 영도의 너두러는 한마디로 쥐어짜면 《비핵, 개방, 3 0 0》을 변함없이 추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나 해지겠다는 실로 끔찍한 수작이다.

다러 뜨쓰는 늙은 말 투레질만 잘한다더니 현인력의 망발이 꼭 그 격이다. 현인력으로 말하면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이로 하여 영도는 여론의 규탄대상이 되고 이제는 집권세력 내부에서조차 쓸모없는 인물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바베맞은 현인력이 아닌보실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 하였지만 그런 너두러로 어떻게 북남관계파괴자로서의 죄악을 감출수 있겠는가.

현인력이 이번에 북남관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전을 피했는데 그 책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인력연말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하지 않고 동족대결을 정책화하지 않았더라면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갑자기 대결의 과거에도 뒤질것없을리 없다. 다름아닌 현인력이 고안해낸 《비핵, 개방, 3 0 0》과 그에 따른 남조선당국의 대결전쟁소동이 바로 오늘의 북남관계파국을 불러왔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호전파들은 미제침략군과 야합하여 북침을 노린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발판으로 벌려서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위험을 극도로 증대시키고있다. 그런데도 현인력이 저들의 죄악은 당반우에 율러

고 그 무슨 《대화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운운하였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한 자인가.

현인력이 그 무슨 《비핵화》와 《대의개방에로의 유도》를 꼽을것은 더우기 가증스럽다. 그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기어이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악랄한 총제의 발로로서 북남관계개선을 거부하고 동족대결과 전쟁도발의 길로 계속 질주하겠다는것을 선언한것의 다른것이 아니다.

현인력의 망발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최악의 위기에 빠진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침도 없으며 그들은 오로지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모해압살할것만을 노리고있다는것을 뭉중해주고있다.

현인력은 나라와 민족앞에 저지른 반통일죄악으로 하여 이미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아야 할 특급범죄자이다. 이런자가 아직도 고개를 쳐들고 뻔뻔스럽게 북남관계문제를 운운하고 지어 동족을 해칠 망상까지 드러내고있으니 누구인을 격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현인력은 지금 자기의 명줄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있다. 영도의 이번 망동은 사실상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켜 장관자리를 유지해보자는 욕기러리산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현인력이 통일부 장관자리에서 물러날 대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공화국대결망발을 쏟아내고있다는것은 영도야말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민족의 우환거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있다.

영도가 끊어저가는 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발악하고있지만 그것은 부질없는짓이다. 북남관계의 길목에 고집스럽게 붙고앉아 한사코 북방만을 농모며 겨베의 통일지향에 찬물을 끼얹는 현인력은 기필코 역사적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게 될것이다.

현인력이 그 무슨 《비핵화》와 《대의개방에로의 유도》를 꼽을것은 더우기 가증스럽다. 그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기어이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악랄한 총제의 발로로서 북남관계개선을 거부하고 동족대결과 전쟁도발의 길로 계속 질주하겠다는것을 선언한것의 다른것이 아니다.

현인력의 망발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최악의 위기에 빠진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침도 없으며 그들은 오로지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모해압살할것만을 노리고있다는것을 뭉중해주고있다.

현인력은 나라와 민족앞에 저지른 반통일죄악으로 하여 이미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아야 할 특급범죄자이다. 이런자가 아직도 고개를 쳐들고 뻔뻔스럽게 북남관계문제를 운운하고 지어 동족을 해칠 망상까지 드러내고있으니 누구인을 격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현인력은 지금 자기의 명줄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있다. 영도의 이번 망동은 사실상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켜 장관자리를 유지해보자는 욕기러리산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현인력이 통일부 장관자리에서 물러날 대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공화국대결망발을 쏟아내고있다는것은 영도야말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민족의 우환거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있다.

영도가 끊어저가는 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발악하고있지만 그것은 부질없는짓이다. 북남관계의 길목에 고집스럽게 붙고앉아 한사코 북방만을 농모며 겨베의 통일지향에 찬물을 끼얹는 현인력은 기필코 역사적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게 될것이다.

군당국의 기만적인 개혁안 폐기를 주장

남조선의 참여연대가 9일 피괴군부대국의 《국방개혁 307계획》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군부가 확정한 《국방개혁 2020》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개혁안인지 의심스러울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번의 개혁안에 부력과 같이 의 배비를 보다 공격적으로 한 비할대 대한 내용을 담은것은 군사대결구도를 더욱 첨예하게 할뿐이라고 론평은 주장하였다.

론평은 특히 군사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비율의 년 10%이상안을 제시하고 공격 능력강화를 위한 각종 첨단무기의 구매계획을 반영한것은 납득할수 없으며 오히려 안보 불안요인을 가져온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9일 피괴군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군부대국의 기만적인 개혁안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군부대국이 《국방개혁 307계획》을 확정한 사실을 밝히고 이것은 군부의 권한을 확대보강하게 하는 역대 최악의 개혁안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진 목제 《정권》이신 도하였던것보다 막대한 권한을 주면 사회전반이 군에 종속되고 민주화운동이 결성파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군개혁을 통해 군부대국이 엄청난 전쟁장비들을 도입하려 하는것은 무력증강으로 이어져 결국 파도한 군비증강만을 불러오게 된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군부대국이 군개혁안을 즉시 폐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참여연대가 9일 피괴군부대국의 《국방개혁 307계획》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군부가 확정한 《국방개혁 2020》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개혁안인지 의심스러울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번의 개혁안에 부력과 같이 의 배비를 보다 공격적으로 한 비할대 대한 내용을 담은것은 군사대결구도를 더욱 첨예하게 할뿐이라고 론평은 주장하였다.

론평은 특히 군사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비율의 년 10%이상안을 제시하고 공격 능력강화를 위한 각종 첨단무기의 구매계획을 반영한것은 납득할수 없으며 오히려 안보 불안요인을 가져온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9일 피괴군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군부대국의 기만적인 개혁안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군부대국이 《국방개혁 307계획》을 확정한 사실을 밝히고 이것은 군부의 권한을 확대보강하게 하는 역대 최악의 개혁안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진 목제 《정권》이신 도하였던것보다 막대한 권한을 주면 사회전반이 군에 종속되고 민주화운동이 결성파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군개혁을 통해 군부대국이 엄청난 전쟁장비들을 도입하려 하는것은 무력증강으로 이어져 결국 파도한 군비증강만을 불러오게 된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군부대국이 군개혁안을 즉시 폐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민족교육의 명맥을 지켜

아이키우기소조에 인입하여 민족교육의 우월성에 대한 실물교양을 진행하고있으며 조청과 류학 등에서 우리 학교 인입생대 학생들을 적극 유치하고있다.

이제 각종된 각종 동포들을 민족교육강화를 위한 사업을 자기들의 사업으로 여기고 온갖 지성을 다 바쳐가고있다.

지난해말 총련 조선대학교에서는 제일조선학생학술문화축전이 동포사회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일본 각지의 류학동 생원들이 참가하였다. 룬문발표회와 토론회, 강연회, 우리 말 구연대회와 음악회, 각종 전시회 등으로 이어진 축전에서는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론문발표회에서는 민족교육문제, 제일조선인운동의 역사와 동포들의 권리를 대공 당국에 대한 항의와 동포사회의 발전, 조국통일 등 9개 부분의 룬문 120여편이 발표되었다. 그중 조선대학교 조국통일 연구소조와 류학동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지부의 김태승청년회 공동집필한 《남조선강점 미군 시대에 동포들과의 사업과 조직적연계를 넓히는 사업을 동시에 힘있게 벌려나오자.》 지방상임위원들은 학교교원들과 함께 동포세대에 대한 방문 당화사업을 꾸준히 벌려왔다. 지금은 총련 이무조조선초급학교의 신입생수를 현재의 두배로 늘릴 목표를 세우고 이룩하게 노력하고있다. 한편 오사카 지역의 녀성동맹에서도 학생력 어린이들 문 넓은 어머니들을

제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적용을 요구

남조선의 시인 윤희상이 11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 제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적용을 요구하여 1인시위를 벌였다.

그는 조선학교의 우리 말 교 교육은 제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해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총련의 합법적인 교육기관인 조선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추진하는것이 마땅하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임금인상과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투쟁 전개

7일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산하 단체들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괴당국의 반인민적로동정책을 규탄하는 투쟁에 돌입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국의 악정으로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폭로하였다.

특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너성로동자들은 일차리, 임금 등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으며 2중3중의 고통을 겪고있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단체들은 투쟁을 통해 임금인상과 로동조건개선을 실현하자고 호소하였다.

이여 참가자들은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싶다!》고 외치

7일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산하 단체들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괴당국의 반인민적로동정책을 규탄하는 투쟁에 돌입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국의 악정으로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폭로하였다.

특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너성로동자들은 일차리, 임금 등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으며 2중3중의 고통을 겪고있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단체들은 투쟁을 통해 임금인상과 로동조건개선을 실현하자고 호소하였다.

이여 참가자들은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싶다!》고 외치

리성일은 호전광의 전쟁광기

남조선에서 규방부 장관 김판진의 호전적망발이 사회 각계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다. 이자가 얼마전 그 누구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점검》을 떠들며 최전연지대의 피괴특공 1군단을 행차하면서 도저히 무과할수 없는 위험한 폭언을 내뱉은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있는 지휘체계실에서 작전태세를 보고받던 김판진은 아무리 계획이 잡되어있다고 해도 《행동이 떠나가야 한다.》고 떠들면서 그 누구의 《도발》시 《참가요. 참가요. 못지 않고 선조지. 후보고하라.》고 다그쳐왔다. 한편 이날 다련장 로케트포대부를 들이치며 《즉각사격태세유지》와 《즉시대포》을 선포하였다.

호전광의 이 폭언이 알려지자 바쁘게 남조선 각계에서는 물가 일어났다. 남조선인론들은 일치하게 김판진의 망언은 《무장총들을 막을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자는 것》, 《북을 자극하여 전쟁을 유발시키려는 매우 위험한 선동》이라고 락인하면서 그의 무분별한 처사가 빚어낸 후과가 심히 우려된다고 하였다. 다우어 보도하였다.

폭로된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피괴호전파들은 연평도

새 세대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특히 모교를 애독하는 현인력들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토론회에서 동포청년들은 제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주인공으로서의 자기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토론을 놓고 밤늦도록 열띤 문제를 벌려왔다.

그 광경을 목격한 우리 동포들은 물론 일본체류중에 있던 남조선동포들까지도 해외교포 민족교육의 전담에서 어엿하게 자라나고있는 이런 미더운 세대들이 있어 이역땅에서 조선민족의 넘겨가 기상이 그대로 이어지고있음을 체부로 느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옛 교사들 떠나며

총련 도교조선제 2초급학교가 새 학년도부터는 번듯하고 아담하게 새로 지은 교사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2008년 7월 새 교사건물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수심차대의 협의회와 모금운동을 벌린데 기초하여 착공의 첫삽을 박은 이 지역 동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주고 학교를 민족교육의 거점으로 더욱 훌륭하게 꾸리는 사업에 무엇일지 아끼는가고 하면서 자기들의 지성을 다 바치었다. 그리하여 교양정림 65층이

사회압력에 시달리는 대결분자들

최근 남조선에서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일부 당국자들의 처사를 비난하던 그들의 사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오

사 회 압 력 에 시 달 리 는 대 결 분 자 들

최근 남조선에서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일부 당국자들의 처사를 비난하던 그들의 사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오

계속되는 미국의 무력증강책동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미국이 경기도 오산비공군기지에 《A-10C》공격기 12대를 배치하려 하고있다. 350명의 미군병력이 함께 배치될것이라고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책동을 비난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8일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추가협상타결과 관련한 여론조사결과를 실었다. 신문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과 대학생 6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3.1%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고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미국에 유리한 일방적인 협정》이며 《사회회귀를 더욱 부추길것》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신문은 전하였다.

김판부수세력의 반인민적죄행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김판부수세력의 반인민적죄행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김판부수세력의 반인민적죄행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김판부수세력의 반인민적죄행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김판부수세력의 반인민적죄행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김판부수세력의 반인민적죄행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김판부수세력의 반인민적죄행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김판부수세력의 반인민적죄행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